



文一學生에게 바랍니다.

문 덕 진 / 교감

文一의 첫 卒業生!

歲月은 빨리 入學당시의 記憶이 아직 생생한데 정든 399명의 학생을 대학 또는 사회로 내보내니 섭섭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403명의 학생과 14명의 교사로 출발한 文一은 처음부터 학생, 학부모의 거센 항의로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였습니다. 그것이 곧 지금의 발전된 文一이 있게 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403명 중 17명의 학생 퇴학과 교사 두 분의 병고로 학교를 사임한 것이 현 시점에서 매우 섭섭한 일입니다. 모든 교사의 희생과 전 학생의 노력으로 차츰 성적이 향상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1986년 7월에 있었던 문교부 산하 중앙평가원에서 실시한 시험에 전국 1등과 많은 성적 상위 학생들이 본교에서 나온 것이 커다란 발전의 계기가 되었고 처녀 출전한 영어 춘극 말하기 대회에서의 종합 우승은 전혀 예측치 못하였던 일이었습니다.

文一 학생 여러분!

모든 인문계 학교가 갖는 잘못된 일종 하나가 너무나 입시 공부에만 열중한 나머지 교사와 학생들 사이가 지식의 전달로만 그쳐 그 이상의 파스함과 끈끈한 정을 느낀 시간이 적은 것입니다. 학생들은 공부 벌레가 되고 내신제로 인하여 친구들끼리 경쟁을 하고 서로의 지식을 교환하지 못하고 극도로 자기 본위의 사람이 되고 인간미를 잃어가니 답답할 뿐입니다.

좋은 대학에 간다고 인생의 앞길이 훤히 트이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신랑 만나 행복하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부모의 덕에 편히 부족함이 없이 학업에 열중하고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지만 부모가 여러분의 인생을 대신하여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부모덕에 100m까지는 잘 뛰었다고 하지만 그런 사람이 마라톤을 한다면 긴 인생의 끝인점에 가서는 얼마나 험박이겠습니까?

공부를 잘 해서 좋은 대학에 입학한 학생은 자만할 것이 못되고 또 3류 대학에 갔다고 좌절할 필요도 없으며 여러가지 이유로 대학에 진학 못하고 직접 사회로 뛰어든 학생도 용기를 잃어서는 안됩니다. 길고 짧은 것은 재보아야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따스함이 중요합니다. 가난하고 나만 못한 아이를 친구로 갖고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인생을 크게 넓게, 그리고 행복한 삶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지금 공부를 잘 하지 못해도 장래에 큰 꿈을 갖고 생활하면 됩니다. 미국의 카터나 레이건 대통령도 학교 성적은 중간 정도였다고 합니다. 장래의 꿈이 크고 인간적인 따스함이 있는 사람은 공부 잘 하는 사람을 거느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등생은 그들 나름대로 인간의 본질성을 잃지 않고 더욱 정진하면 됩니다.

文一의 앞날은 첫 졸업생 여러분의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한국의 문학을 대표할 훌륭한 문인도 나와야 되겠고 예술인, 교육자, 과학자 등 사회에서 꼭 필요한 여성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또한 모교 발전을 위하여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는 선배가 되어야 하겠고 많은 수의 졸업생이 다시 모교의 교사로 근무도 하여야 됩니다.

어떻게 동문회를 이끄느냐에 따라 모교의 발전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선배가 없는 대학에 쓸쓸히 입학하여 서러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서러움을 후배에게 물려줘서는 안됩니다. 각 대학 내에 문일 동문회를 조직하여 후배를 따뜻하게 맞이하여야 되는 것도 여러분이 할 책임입니다.

졸업생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남을 의식하고 자기 언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 자리에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사람이 됩시다. 우리 문일을 여성 교육의 요람지로서 그 명성을 전국에 드높입니다.

교가에서 말하듯이,

“억만년 끊임없이 그 큰 빛 이어가니 온 누리 이 겨레를 끝까지 비추어라. 영광의 우리 학원 우리의 문일 여고.”